



미조성 공원부지, 명품공원으로 확 바뀐다

서산·예구·마동 등 4곳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공암벽·다목적구장 등
지역특성 맞춰 테마별 추진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광양시가 지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대대적인 명품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시는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별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에 공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공원 조성 대상은 광양읍 서산, 예구 근린공원과 중마동에 위치한 마동 근린공원, 마동 체육공원 등 4개소다.

광양시는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즐겁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공람·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6400㎡)을 설치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무질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공동묘지(75기) 이장과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마동 축구장 인근과 새롭게 조성되는 구역(미가로 골프연습장 ~ 현충탑 부근)을 순환하는 방식의 산책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특히 보행교 2개소(마동 축구장 남측, 카이스트 빌 북측)를 설치해 이용객의 교통안전성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시는 '예구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덕레 지구단위 구역 내에 전방 최대형 인공폭포와 일곱 빛깔정원, 인공 암벽 등반장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마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테니스 코트 6면과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다목적 구장 1면을 조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동호회의 건립

한 스포츠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공원 조성 대상 4곳에 대해 오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희상 광양시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공원 조성 계획 결정(변경)으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국제로타리 3610지구, 방역차·보행보조기 기증

국제로타리 3610지구(총재 김정임)가 제21년 차 지구대회를 기념하는 지구봉사 사업으로 방역차와 보행보조기를 기증하는 등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21일 국제로타리 3610 지구에 따르면 광양시에 2000만원 상당의 방역차 1대를 기증했으며,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보행보조기 100대(2000만원 상당)를 광양 기증했다. <사진>

특히 이번에 기증한 보행보조기는 김정임 총재가 사비 2000만원을 들여 보행이 불편한 지역 거주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를 추천받아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문승표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을 소리 없이 실천하는 국제로타리 3610지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제로타리 3610지구는 이번 지구 봉사 사업 외에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

오지마을 물탱크 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남지역 5개마을(완도군 청산면, 신안군 기도, 고흥군 연흥도, 여수시 화양면, 장흥군 장평면)에 물탱크를 기증했으며, 국제봉사사업으로 필리핀 잠보앙가시에서 운영하는 바랑가이 칼라리안 보건소를 재건하기도 했다. 또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5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올해 시민 행복 민원서비스 펼칩니다 광양시, 제도개선 계획 마련

광양시가 시민 행복과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민맞춤형 민원제도 개선과 서비스 강화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광양시의 민원 행정 주요 전략은 '시민 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 및 개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 등이다.

시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으로 시민불편 민원제도 및 우수사례를 상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 고객서비스 준수사항 이행 점검, 온라인 민원사무원람 정비,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확대해 민원정보 시민 안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특히 부서 협업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인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전자민원(민원24) 이용,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민원창구를 적극 운영하는 등 시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민원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시청 민원실에서 방문객 맞이 인사 예절 등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전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과시간 외 여권야간민원실 운영(매주 1회),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365무인민원센터 활성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자원봉사 및 청원경찰 상시 배치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를 목표로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또 민원 사전심사제, 후견인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강태원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주요 교차로 차량 흐름 빨라진다

5개 구간 23개 교차로 정비
신호등 연동화 등 개선키로

광양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등 연동화와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신호등 연동화는 시간대별 주요 도로변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제어를 순차적으로 제어해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교통신호등 연동화를 위해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량과 교차로 특성 조사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 구간은 제철로(대근 사거리~제철2문 삼거리) 7개 교차로, 백운1로(태인1구 사거리~명당길 삼거리) 6개 교차로, 백운로(금호대교 사거리~협력회관 사거리) 3개 교차로, 청암로(금호대교 사거리~마동1 교차로) 3개 교차로, 향만대로(길호릿길 사거리~중마교 사거리) 4개 교차로 등 5개구간 23개 교차로다.

해당 구간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및 신호체계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정체 시간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자동차 매연 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신희섭 광양시 교통관리팀장은 "지속적인 차량 통행량 증가로 기존 연동화를 추진했던 구간과 신규 개설된 도로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경찰-보건소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최근 광양시보건소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회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등을 도울 계획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64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4주년

광주일보 64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창사 6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최갑철 삼일건설 회장)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Leaders Academy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강사진



이시형 세토노문화위원장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윤규병 보리출판사 대표 박애리 국어인 황교익 빛깔연구소장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 허시영 숲 문화가 이덕일 원가람연구소장 서민 단국대 의대교수 강신주 철학자